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 탐색: 피드백과 동료와의 협동 과정을 중심으로

신 지 혜*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 단계 중 피드백 과정과 동료와의 협동을 통한 수업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경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명의 중등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성찰저널, 면담, 수업동영상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피드백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수업실제를 바라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판적인 수업평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예비음악교사의 의지를 억제시키기도 하였다. 둘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음악교사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악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셋째,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동료 간의 협동은 예비교사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다. 하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예비교사들의 미숙한 모습은 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주제어: 마이크로티칭, 교사협동, 음악교사, 교사교육, 교사 전문성

차 례

I. 서론

II. 마이크로티칭의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 | | |
|-----------------|----------|
|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 | 2. 연구 절차 |
| 3. 연구 도구 | 4. 자료 분석 |

IV. 연구결과

1. 마이크로티칭에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
2.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동료수업 관찰
3. 마이크로티칭에서 동료 간 협동과정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jhshin99@ewha.ac.kr

I. 서론

최근 들어 예비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사의 자질은 교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선행연구들은 (Kelly, 2015)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이론과 교수 실제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교사들이 교사가 된 후 직전교육과 교육 현장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Ballantyne, 2007) 예비교사가 교사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여러 다양한 교수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교수 실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성적 사고이다. 듀이는 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및 믿음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다(Dewey, 1991). 반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교수 모형과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자신과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방법과 과정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Dewey, 1904). 따라서 이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수 상황을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듀이(1904)는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돕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조화된 모의수업상황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수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은 학급 경영과 같은 교수 실제의 요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수업과 반성적 사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모의수업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마이크로티칭 수업 형태에 대해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로티칭이란 실제수업을 축소한 형태로 수업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분석한 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의 수업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조영남, 2011).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에서의 수업실연이 학교현장에서의 실습보다 더 힘들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동료들의 평가가 더 까다롭고 비판적이기 때문이었다(Butler, 2001).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동료들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의 평가보다도 동료들의 평가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d'Alessio, 2018). 실제로 많은 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들의 피

드백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Napoles, 2008). 예비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초반에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점차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김안나, 2017).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냉정하게 자신의 교수 실재를 비판하는 것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다(조영남, 2011; Amobi, 2005).

많은 선행연구들은 또한 마이크로티칭의 효과성에 주목하면서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윤지영, 임승렬, 2012; 이은택 외, 2017; Igwe et al., 2011) 이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업실재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김안나, 2017). 또한, 예비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하면서 교수·학습안 작성에 도움을 받았고, 학생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고할 수 있었다(오지향b, 2012; 홍재영, 2012). 특히 동료와 협동하며 시행한 마이크로티칭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감을 내려놓고 동료와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이봉주, 윤용식, 2014).

이처럼 예비교사들을 위한 마이크로티칭의 전반적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마이크로티칭의 각 세부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실제 교육현장의 마이크로티칭의 준비단계와 실행단계에서 빈번하고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동료들의 다양한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는 것과 동료와의 협동을 통한 수업 설계 및 실행이다(d'Alessio, 2018; Napoles, 2008). 따라서 예비음악교사들이 피드백 및 동료와의 협동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마이크로티칭 운영 방식에 대해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의 단계 중 피드백 과정과 동료와의 협동을 통한 수업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경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음악교사들은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둘째, 예비음악교사들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동료수업 관찰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셋째, 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와의 협동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Ⅱ. 마이크로티칭의 이론적 배경

마이크로티칭은 196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드와이트 앨런(Dwight Allen) 교수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Igwe et al., 2011). 이 기법은 실제 수업과 같은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된 수업을 녹화하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업 재설계를 하고 다시 수업분석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석기, 2015). 마이크로티칭의 전통적인 형태는 예비교사들이 특정한 수업의 기술을 익히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 들어 이들에게 완성된 수업경험을 제공하고 실습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수업을 진행하도록 돕기 위한 방향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Amobi, 2005). 즉 마이크로티칭은 구조화된 교수 실재를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Igwe et al., 2011).

마이크로티칭의 전반적인 과정은 준비단계-강의단계-수업단계-평가단계-재설시 단계-재평가 단계로 구성된다(정석기, 2015). 준비단계에서는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수업환경과 도구를 준비하고, 강의단계에서 교수자는 예비교사들이 마이크로티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의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수업단계에서는 조별로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단계에서는 서로의 수업을 평가하고, 각 조는 녹화된 동영상 등을 통해 자기평가 한다. 재설시 단계에서는 평가단계를 바탕으로 수정된 수업을 실시하고, 재평가 단계에서는 재수업을 평가하며 토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마이크로티칭의 요인은 바로 녹화된 수업을 보며 시행하는 자기평가와 교수자와 동료부터의 피드백이다(Amobi, 2005). 이를 통해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티칭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 중 한 가지는 마이크로티칭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동료 간 제공되는 피드백이 목표와 일치하며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벽(2012, pp. 110-112)은 참가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 일부의 내용에는 ‘단점을 말하고 장점을 먼저 말한다,’ ‘단점을 지적할 때는 미안해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한다,’ ‘단점을 하나 말하면 반드시 장점도 하나 말한다,’ ‘장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단점을 지적하면 가급적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등이 있다. 또한, Zhang과 Carr-Chellman(2011)는 수업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닌 관찰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 소재 A대학교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생들로 2016년 2학기에 개설된 ‘중등음악교수법’을 수강한 20명의 예비음악교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3학기와 4학기 학생들로, 대부분 이전에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는 수업 첫 시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연구의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참여 여부가 수업의 성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받았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A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교수로 2015년부터 마이크로티칭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이 보다 효과적인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을 탐구하고자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2. 연구 절차

1) 음악수업 설계 및 교수법 이론

연구자는 마이크로티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음악수업 설계와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예비음악교사들은 이미 타과목에서 음악수업 설계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복습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음악교수법에 대한 이론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2-6주차까지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포괄적 음악교육에 대한 이론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1차 마이크로티칭이 진행된 후 10-13주차에는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인지적 도제이론, 생성적 음악교수 이론, 구성주의적 교수 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2) 마이크로티칭 시행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을 위한 마이크로티칭은 1차 수업설계-1차 수업실연-평가 및 피드백-2차 수업설계-2차 수업실연-평가 및 피드백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차와 2차의 수업실연은 참여자들이 이전에 배운 교수법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음악수업 영역을 선정하고 총 20분 동안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이크로티칭을 위해서 2명이 한 조를 이루었는데, 각 조별 팀원은 컴퓨터로 인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었다. 마이크로티칭 수업설계 및 준비를 위해 각 조는 자유롭게 교수법과 수업 주제를 선택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이 후 작성한 지도안을 이메일로 연구자에게 제출하였고, 연구자는 각 조와 만나서 피드백을 구두로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안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들은 조별로 2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는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한 조의 팀원은 각 각 개별로 10분 동안 수업을 이끌어나갔고 한 명이 수업을 진행할 때 다른 팀원은 피아노 반주를 하거나 수업 자료를 배부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별 팀원이 맡아서 진행해야 할 수업의 내용과 분량은 각 조별로 논의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조별 수업이 끝난 직후 다른 참여자들은 주어진 평가지를 바탕으로 동료들의 수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때 사용된 평가지는 오지향(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된 것이다. 평가지는 지도안과 수업실연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 되었는데, 지도안에 대한 평가는 그룹으로 이루어졌고, 수업실연에 대한 평가는 개별평가로 진행되었다. 이 후 수업의 다른 동료들과 연구자는 진행된 수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며 구두와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모든 수업이 끝난 직후에 수업을 진행하였던 참여자들은 학교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된 자신의 수업동영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성찰저널에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제출하였다.

2차 수업실연은 1차 수업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1차 수업실연 이후 이론 강의에서 제시된 교수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같은 조의 팀원과 함께 지도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때 1차 수업에서의 동료 및 연구자의 피드백과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도안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수업실연 진행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각 조는 2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 때 지도안에 대해서는 그룹 평가, 수업실연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다른 동료들과 연구자와 함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

진 이후 마이크로티칭에서의 경험과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반성하는 성찰저널을 제출하였다.

3. 연구 도구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의 성찰저널, 면담, 수업지도안 및 수업관찰이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다. 각 연구 도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업실연이 끝난 후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된 자신의 수업동영상을 감상 및 분석하고 성찰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미리 성찰저널의 구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마이크로티칭 수업준비의 어려움, 수업설계와 실행에서 동료와의 협동과정,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통한 교사로서 자신의 강점과 단점 분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참여자는 총 2개의 성찰저널을 작성하였고, 분량은 저널 당 3-5페이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성찰저널의 내용 중 피드백과 동료와의 협동 과정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마이크로티칭이 종료된 직후 12월 중순에 연구 참여자 중 7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개별면담의 목적은 수업지도안 및 수업관찰과 개인 성찰저널에서 드러난 요인들을 구체화시키고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수업관찰이나 개인 성찰저널 자료에서 피드백과 동료와의 협동 과정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과 다른 경험이나 견해를 제시한 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여자 당 30-5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면담질문은 참여자별로 다르게 주어졌으며, 주로 예비교사가 수업에서 보인 행동이나 성찰저널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수업지도안을 참고로 하여 녹화된 수업동영상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내용은 예비교사들의 성찰저널과 면담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보조적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순환적 분석 기법(신경림 외, 2004)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연구

문제에 따라서 분석의 틀을 마이크로티칭 피드백 과정, 동료수업 관찰, 동료 간 협동으로 나누었다. 이 후 이러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성찰저널, 면담, 수업지도안 및 수업관찰에서 수집된 내용을 여러 번 읽고 반복되는 쟁점이나 이슈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이 때 드러나는 주제나 개념의 내용이 서로 보완되는지 상충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예비 분석이 끝난 이후에 분류된 주제나 개념의 관계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동료 연구자 2명에게 잠정적인 주제를 확인하고 분류된 주제를 검토하도록 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된 주제와 개념의 하위 주제를 분류한 후 최종 해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마이크로티칭에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

1) 객관적 평가를 통한 예비음악교사로서의 발전의 기회

본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과정에서 동료들과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녹화된 자신의 수업을 보면서 자기 평가를 할 기회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이크로티칭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1차와 2차 마이크로티칭 후에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예비음악교사 I와 G는 마이크로티칭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 예비교사들의 피드백과 내가 진행하는 수업을 직접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I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수업을 하는 내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 영상을 찍어서 나의 모습을 보니 내 행동이나 말버릇이나 자세 등도 볼 수 있어서 신선했고, 나를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예비교사 G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은 아직 교수경험이 많지 않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평가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교사교육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티칭은 자신의 수업실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관점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의 수업을 돌아보면서 예비교사 A와 B는 마이크로티칭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두 번의 수업을 하며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다른 교사들의 피드백으로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한 시간이라 참 감사하다. (예비교사 A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페이퍼를 통해 좋은 점수를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적어 주신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고칠 점도 알게 되고, 좋은 장점도 알게 되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잘하는 것을 더욱 살리고, 못하는 것을 보완하여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커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비교사 B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찰저널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티칭 과정은 예비교사들이 알고 있던 자신의 장점을 동료와 교수자로부터 확인받게 하였고 더 나아가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자신의 잠재력과 강점을 알게 하여 교직 선택 동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을 통해서 발견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실례로 예비교사 C는 첫 번째 마이크로티칭에서의 동료 피드백과 자기평가를 통해 말의 속도가 빠름을 인지하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효과적인 수업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후 이러한 모습을 두 번째 마이크로티칭에서는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이크로티칭 후의 예비교사 C의 성찰저널 일부분이다.

첫 번째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임하기 위해 ‘차분히 하자.’ ‘떨지 말자’를 되뇌었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급하지 않게 하자’였다. 저번 수업의 녹화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의 평가를 보고 난 후 ‘말이 빠르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가장 크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했다. (예비교사 C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동료들과 교수자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던 과정은 예비음악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1차와 2차 성찰저널 분석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참여자들이 1차 성찰저널의 많은 부분에서 예비음악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반면 2차 성찰저널에서는 2번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해서 발전된 자신의 모습과 그 과정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비교사 A와 K의 두 번째 성찰저널의 일부분이다.

수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긴장도 덜하게 되고 그만큼 실수도 줄일 수 있는 것 같다. 전문가다운 교사로 다듬어가는 과정임에 틀림없다. 수업지도안 작성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그 준비부터 해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평가까지 받으니 발전이 안 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예비교사 A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 예전에 단점이라고 생각했고 동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예전보다 개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수업을 할 때 덜 떨어서 그 점이 저에게는 너무 큰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예비교사 K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전반적으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을 하면서 동료와 교수자로부터 자신의 수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면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과정은 예비음악교사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2) 지나치게 비판적인 수업평가

비록 마이크로티칭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와 교수자의 평가가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소수의 참여자들은 동료의 평가 내용이 지나치게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J는 동료의 피드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래 타악기를 전공했으니깐 리듬을 빠르게 말하는지 전 잘 몰랐었어요. 박자가 전체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정말 너무 빠른 것 같네요. 막 이렇게 하거나, 이번에 변형장단 했을 때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이들한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냥 중학교 애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꺼 같아요..라고 얘기해주시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냥 어려워요 막 이렇게 지나치게 적어놓으니깐... (예비교사 J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마이크로티칭을 진행하면서 학기 초반에 참여자들과 함께 평가의 개방형 문항에서 동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해야 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피드백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동료들의 비판적인 피드백은 예비음악교사들이 새로운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는 대신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티칭의 피드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예비교사 A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다른 선생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제 안에 있는 잘할 수 있는 거에서만 찾는 거 같기는 해요. (예비교사 A의 인터뷰 중에서)

위에 제시되었듯이 동료피드백은 예비음악교사들이 교사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인 피드백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예비음악교사의 의지를 억제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수자는 음악수업에서 필요한 수업기술 및 교사태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등하게 마이크로티칭에서 필수 요소인 동료피드백의 방법과 내용, 효과 등에 대해서 예비교사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2.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동료수업 관찰

1) 음악교사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음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을 하는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무엇보다도 음악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중에서도 수업을 할 때 학생들 앞에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동료들의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예비교사 N과 O의 성찰저널의 일부분이다.

무엇보다 어떤 수업이 기억에 남았나 생각해 보면, 자신감 있고 밝게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모습, 또 즐겁게 노래하거나 연주를 했던 수업이 좋았던 걸 생각했을 때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면서 참여형의 수업,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앞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교사 N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으로, 교사가 수업 중 소심하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학생들도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책 읽는 식으로 표현하였던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은 빠르게 흐트러졌고 이는 수업과 음악교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예비교사 O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차분한 말투도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말투가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예비교사 P와 L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침착한 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였다... 여러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지만,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으로 침착한 톤으로 말씀을 하는 선생님이 훨씬 보기 좋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비교사 P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저와 반대되는 성격의 차분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니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론 설명할 때 또는 중요한 부분을 집어줄 때는 저렇게 톤을 낮추고 차분히 말하는 방법 또한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비교사 L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자신감과 차분한 말투 등 음악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는 학생의 입장에서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되거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음악수업의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비음악교사들은 수업의 기술이나 교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의 태도도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2) 음악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습득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이들은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교수법 이외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다양한 수업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A와 Q는 마이크로티칭의 주요한 점을 동료수업 관찰을 통한 아이디어 습득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선생님들의 수업시연을 보면서(내가 놓치고 있었던 자료들을 적용하는 경우를 봤을 때) 특히 다양한 시각자료의 적용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림악보를 활용한다든지, 섀여림의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자료들이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예비교사 A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다른 사람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배운 점은 첫째, 도입부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운 학습요소를 퀴즈로 풀며 진행하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시각적인 유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여 효과적이었다. (예비교사 Q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교사교육단계에서는 교생실습 때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과정에서 동료들의 다양한 수업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음악수업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료와 교수자의 객관적인 평가는 예비음악교사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수업실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동료수업 관찰은 이러한 교사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던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3. 마이크로티칭에서 동료 간 협동 과정의 경험

1) 동료 멘토링을 통한 부족한 부분 보완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두 번의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하면서 동료와 조를 이뤄 지도안을 구성하고 수업을 준비하였다. 많은 참여자들은 지도안을 구성할 때부터 서로의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마이크로티칭에서 동료와의 협동에 대해서 예비교사 I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혼자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아닌 파트너와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지도안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과는 다른 완성도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 해주거나 내 아이디어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 확신이 없을 때 동료의 반응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거나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수업을 진행하도록 구성된 의견을 동료에게 제시하면 이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 생각을 첨가하여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I의 첫 번째 성찰저널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음악 및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이 한 조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지도안 구성에서의 협동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의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언을 주기도 하였다. 예비교사 B와 F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성찰저널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지도안을 만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안을 만든 후 서로의 수업을 시범으로 하고 서로 봐주면서 이런 점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러한 점은 좋았다고 칭찬도 해주면서, 자신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봐주면서 윈윈할 수 있었고, 직접 연습을 여러 번 해보면서 자신감 있는 태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비교사 B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서로의 수업을 미리해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확히 짚어주어 이를 수정할 수 있었다.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텐데 서로 수용하며 겸손한 태도로 수업에 적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

있던 것 같다. (예비교사 F의 두 번째 성찰저널에서)

음악교사 간의 협동은 교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실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Shin, 2018). 이와 비슷하게 예비음악교사간의 협동은 이들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동료 간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의 갈등

본 연구에 참여한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대부분 마이크로티칭 과정에서 동료와의 협동에 만족감을 나타내었지만 소수의 참여자들은 동료와의 갈등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예비교사 A와 M의 협동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뷰 중에 예비교사 A와 M은 동료와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내용과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저만의 지도안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각도 있고, 구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크게 잡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은 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자세하게 하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맞춰나가는 거... (예비교사 A의 인터뷰 중에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다 보니깐 아는 지식도 다르고, 배경적인 그런 것...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지식에 대한 탐험심, 모험심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그 분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율하기가 약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예비교사 M의 인터뷰 중에서)

예비교사 A는 이러한 갈등이 각각의 예비교사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향과 협동하는 잘못된 모습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면서 아, 애랑 나는 성향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때는 그래도... 이게 시작이 됐는데 너무 상처 주는 말을... 친하니깐... 뭐라 그래야지. (동료가) 말의 스킬이 부족한 거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도 되게 많이 상했고... (예비교사 A의 인터뷰 중에서)

교사 간 협동에서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협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Shin, 2018). 비록 예비교사 A와 M도 교사교육 시작단계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협동하는 과정에서의 다소 미숙한 모습은 동료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 협동 과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의 피드백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예비교사 간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자의 추가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이크로티칭의 단계 중 피드백 과정과 동료와의 협동을 통한 수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의 중등예비음악교사의 경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명의 중등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성찰저널, 수업동영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 7명을 대상으로 면담자료를 추가로 수집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과정에서 동료와 교수자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수업실제를 바라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마이크로티칭의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안나, 2017; 윤지영, 임승렬, 2012; 이은택 외, 2017; Igwe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수업평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예비음악교사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였던 점이 나타났다. 교수자와 동료의 피드백은 마이크로티칭의 중요한 요인이다(Amobi, 2005). 이를 통해서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할 수 있으며, 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의 강의단계에서 강의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벽(2012)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이루고, 장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단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된다면 마이크로티칭에서 예비교사 간 보다 의미 있는 피드백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등예비음악교사들은 동료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음악교사로서 갖추어

야 할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악수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티칭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김안나, 2017; 조영남, 2011; Amobi, 2005; Butler, 2001; d'Alessio, 2018; Napoles, 2008)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다양한 수업을 관찰하는 것 또한 교사로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을 운영할 때 타인의 수업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단계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동료 간의 협동은 예비교사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교사 학습공동체를 강조한 선행연구(Shin, 2018)와 비슷하게 본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도 동료의 장점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예비교사들의 미숙한 모습은 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에 제시된 피드백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료 간의 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의견 조율하는 방법,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크로티칭의 경험이 실제 교육실습의 단계에서나 교사가 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은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연구과정을 설계하여 마이크로티칭이 교사교육과정에 혹은 그 이후 교수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 재학생들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음악교사들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다른 교사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안나 (2017).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에게 주는 의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1177-1200.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지향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실연 실태조사. **음악교육연구**, 41(1), 191-227.
- _____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효과 분석. **예술교육연구**, 10(3), 121-144.
- 윤지영, 임승렬 (2012).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음악모의수업에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 내용분석. **음악교육연구**, 41(3), 227-249.
- 이봉주, 윤용식 (2014). 중등수학 예비교사 교육에서 협동마이크로티칭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A <수학교육>**, 53(3), 399-412.
- 이은택, 심규진, 유영만 (2017). 반성적 성찰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운영 사례: 자기수업컨설팅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3(2), 483-515.
- 정석기 (2015).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좋은 수업설계와 실제**. 서울: 박영사.
- 조벽 (2012). **수업컨설팅: 대한민국 교사들을 위한 마이크로 티칭 노하우**. 서울: 해냄.
- 조영남 (2011). 마이크로티칭과 초등 예비교사교육: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4(1), 65-84.
- Amobi, F. A. (2005).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ity on the sequence and consequences of teaching actions in a microteaching experience.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2(1), 115-130.
- Ballantyne, J. (2007). Documenting praxis shock in early-career Australian music teachers: The impact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5(3), 181-191.
- Butler, A. (2001). Preservice music teachers' concep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microteaching experiences, and teaching performa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3), 258-272.
- d'Alessio, M. A. (2018). The effect of microteaching on science teaching self-efficacy beliefs i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29(6), 441-467.

- Dewey, J. (1904). The relation of theory to practice in education. In C. A. McMurray (Ed.), *The third NSSE yearbook* (Part 1, pp. 9 - .3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1). *How we think*.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Igwe, R. O., Uzoka, N. E., & Rufai, S. A. (2011). Reflective effects of micro-teaching and field experiences on pre-service teachers in Nigeria.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4(3), 347-353.
- Kelly, S. N. (2015). The influence of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on preservice music teachers' commitments to teaching.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24(2), 10-22.
- Napoles, J. (2008). Relationships among instructor, peer, and self-evaluations of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majors' micro-teaching experienc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1), 82-91.
- Shin, J. (2018). Using interactions among in-service music teachers in a graduate programme for teacher support. *Music Education Research*, 20(1), 114-125.
- Zhang, K., & Carr-Chellman, A. (2001). *Peer online discourse an analysis*. Retrieved from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470141.pdf>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Experience on Microteaching:
Focused on Feedback and Peer
Collaboration**

Shin, Ji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music teachers' experience on microteaching, especially the process of feedback and peer collaboration. Twenty preservice music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flective journal, interview, and class recording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feedback process, participants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improve teaching skills and gain confidence in teaching as well as to view their teaching process objectively. However, overcritical feedback hindered them to try new teaching ideas. Second, while observing peers' classes, participants c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teachers' attitude and learn various teaching ideas from others. Third, teacher collaboration in microteaching enabled participants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on music teaching. However, immature behaviors in collaboration resulted in conflicts and dissonance among participants.

Key words: microteaching, teacher collaboration, music teacher, teacher educatio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투고일: 2018년 11월 20일, 심사(수정): 2019년 1월 17일(1월 20일), 게재확정일: 1월 29일